

2022년 10월 넷째주 구역모임 나눔지

가스펠 프로젝트 - 4장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 함께 찬양(추천곡) - 찬 288장 / 빛 되신 주 / 거룩하신 하나님

[어는질문] 기념비나 기념탑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Session summary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입니다. 선택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인생에서 새롭게 감당해야 할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토대요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았고,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산 돌이 되십시오 (벧전 2:1-8)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쉬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안의 죄를 멸하십시오(1절).

예) 집 진드기

격렬하고 단호하고 긴급하게 죄 된 육체와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 모두에게 쉬이 떨쳐지지 않는 죄들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이것을 없애 버리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명령한다. 우리에게는 뛰어야 할 경주가 있고 싸워야 할 전투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적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평생의 배움이 있다.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2-3절).

아기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원한다. 아기에게 젖이나 이유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자양분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교회에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선 균형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성경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셋째,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4-8절).

4절의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더욱 많아지기를 갈구하는 것이다.

[나눔질문 1]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2.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택하신 족속으로 사십시오(벧전 2:9-10)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을 네 가지로 나누어 묘사한다. 곧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첫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묘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셨던 모습

과 연관된다.

둘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직분은 우리가 불신하는 주위 세상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섬긴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어짐으로써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삶으로써 거룩해져야 한다.

넷째,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표현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가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우리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종목표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나눔질문 2]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 열렬한 선교사가 됩니다” 헨리 마틴

3. 교회는 선행을 베풀도록 부름받았으니 천국 시민권자로 사십시오(벧전 2:11-17)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시민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이 비롯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죄악 된 갈망을 피하는 것이다(11-12절).

세상과 다르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13-16절).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17절).

[나눔질문 3]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함께 기도

1.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2. 서로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 예수인교회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대한민국을 위해